이미 존재만으로 빛나는 우리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㊴ '미지의 서울'(2025)



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얼굴은 같지만 모든 게 다른 쌍둥이 자매가 서로의 인생을 바꾸어 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삶의 시선을 바꾸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언제부터인지 쌍둥이를 태운 유모차가 부쩍 많아진 느낌이다. 왜 그런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통계상으로 대략 1% 정도였던 한국의 쌍둥이 출생률이 2015년에 3.7%까지 올랐고, 2024년에는 5.7%까지 늘었다고 한다.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 난임 문제로 시험관 시술을 받는 부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같은 DNA를 가지고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이들의 삶도 외모처럼 같거나 비슷하게 펼쳐질까?

충청도의 시골 마을 두손리에 사는 유미지(배우 박보영)는 중학교 때부터 단거리 육상 선수로 활약하며 체육 특기생을 꿈꾸던 소녀였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부상을 입고 육상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극심한 좌절감에 빠져 3년 가까이 방 안에서 은둔 생활을 이어간다. 엄마와 외할머니가 무던히 애를 썼지만 결코 문을 열지 않았던 미지. 어느 날 여전히 미지를 설득하던 외할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는데, 집에는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미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들부들 떨면서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된다.

미지에게는 유미래(배우 박보영)라는 쌍둥이 언니가 있다. 엄마조차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이 생긴 미지와 미래지만, 둘의 삶은 정반대에 가깝다. 신체적으로 건강했던 미지와 달리 미래는 어려서부터 심장병을 앓았다. 공부와는 담을 쌓고 살던 미지와 달리 미래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목표로 할 만큼 공부도 잘했다. 하지만 시험 운이 나빠 원하던 1순위 대학에 가지 못했고, 행정고시도 3년의 도전 끝에 포기한다. 지금은 공기업인 금융관리공사에 취업해 변함없는 집안의 자랑으로 살고 있다.

어릴 적, 이들 쌍둥이 사이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정식을 뗀 미래는 하루에 네 번씩 한약을 먹는 일이 고역이었다. 반면 흙을 퍼먹어도 건강한 미지는 4학년이 돼서야 구구단을 떼었을 정도이니, 수학 문제 푸는 일이 끔찍하게 싫었다.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던 둘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대신해 주기로 약속한다.

미지가 미래가 되고 미래가 미지가 되기를 몇 차례 반복했을 즈음, 둘의 발칙한 비밀은 곧 엄마에게 들통나버린다. 그 결과 미지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것으로 둘의 외모가 구별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러 어느덧 서른이 된 미지와 미래. 미지는 요양원의 외할머니를 보살피며 고향에서 '프로 단기계약직'으로 살고 있고, 미래는 어엿한 직장인으로 서울에서 살고 있다.

회사의 가장 핵심 부서인 기획전략팀에서 '에이스'로 일하던 미래는 부서 상사의 비리에 맞서 내부 고발을 한 동료의 편에 섰다가 직장 내 괴롭힘의 타깃이 돼 1년 동안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어진 미지가 베란다에서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순간, 서울까지 반찬을 들고 불쑥 찾아온 미지가 가까스로 미래의 손을 붙잡지만 둘 다 떨어지고 만다. 다행히 3층 높이인 데다가 미래가 화단 위에 미리 던져놓은 이불까지 있어서 큰일이 나지는 않았다. 그 후 미래의 사정을 들은 미지는 어릴 적 비밀 약속을 다시 꺼낸다. "대신해 줄게, 옛날처럼. 네가 너로 살게. 넌 나로 살아."

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얼굴 빼고 모든 게 다른 쌍둥이 자매가 서로의 인생을 바꾸어 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시선을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다. 쌍둥이는 외모가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같으리라는 예상을 하기 쉽지만 미래와 미지는 성격은 물론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두 사람에게 놓인 과제는 같지만 다른 미래와 미지가 서로를 이해하는 일이다. 그래야 능수능란하게 '미지인 척', '미래인 척' 연기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이처럼 '미지의 서울'은 드라마 전반에 걸쳐

얼굴 빼고 모든 게 판이한 쌍둥이 자매 인생 맞바꾸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과 자신과 삶을 향한 시선 전환 내용 담아 서로 달라 보여도 본질은 다를 것 없어



드라마 '미지의 서울' 포스터. **사진 출처=tvN**

서 '하나'와 '둘'이라는 수를 통해 끊임없이 같음과 다름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전혀 다를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고등학교 동창 이호수(배우 박진영)와 미지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호수는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며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자란 외동아들이지만, 미지는 능력 있는 언니 미래와 비교당하며 사는 집안의 아픈 손가락이다. 하지만 호수와 미지 모두 아버지 없이 자란 공통점이 있다. 특히 고등학생 때 부상으로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칩거했던 미지는 교통사고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호수와 비슷한 아픔이 있다. 호수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하는 미지는 다친 다리를 하고도 산에 오르는 호수를 묵묵히 기다려주며, 외할머니가 자신을 방에서 나오도록 한 것처럼 호수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준다.

드라마의 이런 주제 의식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한때 시인이었던 로사식당의 사장 김로사(배우 원미경)의 사연이다. 미래가 다니는 금융관리공사에서 사옥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중인데, 끝까지 땅을 팔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로사. 미래를 대신해 회사에 다니던 미지는 사무실에서 그림자처럼 지내는 것을 견디다 못해 로사를 설득하는 일을 맡지만 갈 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하는 신세다. 우여곡절 끝에 로사의 기금으로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닌 호수의 도움을 얻어 로사와 가족처럼 지내게 되는데, 로사의 정체가 젊은 시절 '진짜 로사'를 죽이고 그녀의 삶을 훔쳐 산 '현상월'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로사가 궁지에 몰린다.

식당을 고스란히 뺏길 상황에서 로사의 삶을 대신 살아온 상월은 호수와 미지에게 직접 자신의 사연을 들려준다. 어릴 때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로사와 상월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였다. 먼저 결혼한 로사가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젖먹이 아들과 상월의 집으로 도망쳤지만, 남편에게 들켜 다툼 끝에 로사가 남편을 해치게 됐다. 상월은 아들을 키워야 하는 로사를 위해 죄를 덮어쓰고 기꺼이 감옥에 들어갔다. 형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살인자'라는 이유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던 상월은 로사와 함께 살면서 명의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로사의 이름을 사용했다. 암에 걸린 로사는 상월에게 계속 로사로 살라고 당부하고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현상월에게 넘긴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난독증 때문에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상월은 로사의 유서 내용을 알지 못했다. 로사로 살면서 번 모든 돈을 정신병을 앓던 로사의 아들 병원비와 대학교에 기부하며 살아왔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 중에 '야누스'라는 신이 있다. 야누스는 머리 뒤에도 얼굴이 있어서, 앞뒤의 얼굴이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두 얼굴을 가졌다는 점에서 보통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원래 야누스는 '문의 신'이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문을 지킬 때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안과 밖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나의 머리에 두 개의 얼굴이 있는 모습이 됐다고 한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쌍둥이인 미지와 미래, 자매보다 더 깊은 친구였던 로사와 상월이 서로를 위해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와 둘의 문제를 진중하게 전하는데, 주제 의식을 상징하는 것이 '문'이다. 문의 신에게 얼굴이 둘인 것처럼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거 절망 속에서 방 안에만 칩거했던 미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세상은 다 정상인 것 같은데 나만 비정상인 것 같은 생각, 세상은 아름다운데 나만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문을 나서지 못하게 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불이(不二), 둘이 아님'을 가르친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고 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와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의 모습을 보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와 남이 다르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며 나만의 방에 갇혀 있다면, 얼굴을 밖으로 향하여 그저 방문을 열고 나서면 그만이다. 거기에는 누가 더 잘날 것도 없고, 무엇 하나 모자라지도 않은, 이미 존재 자체로 빛나고 있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을 뿐이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일일시호일

가족 위해 버틴 13년 한국살이, 신장암 앞에 멈춰
"다시 일해 아내와 두 아들 돌보고 싶습니다"

스리랑카 출신 만줄라 씨, 홀로 한국서 생계 부양
병원비 4000만 원…앞으로 치료도 큰 부담
한 가정 무너지지 않도록 불자들 도움 절실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